

## (주) 보루네오가구

### 국내가구 문화발전의 주역



국내 가구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국내가구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주도해온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대표: 위상식)는 완전 자동화된 최신 설비와 이태리 최고의 기술을 도입,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가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66년에 창립하여 25년간 가구 하나만을 개발, 생산해 온 보루네오가구는 현재 인천시 고잔동에 5만 6천평 대지위에 연전평 4만 6천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1,500여종의 자동화 설비를 통해 연간 2,100억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루네오가구의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가정용, 사무용, 부엌가구, 소파 등 다양한 종합가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종류만해도 1,500여종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실의 효율적인 활용과 업무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Wall to Wall system 가구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사무실 뿐만 아니라 거실의 장식장도 완전 system화 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0년 홍콩을 선두로 해외시장에 진출했던 보루네오가구는 현재 미국의 LA, 뉴욕, 일본, 대만, 싱가폴을 비롯해 세계 30여개국에 수출하여 세계품질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진출 초기부터 "BIF Korea"라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우수한 품질,

정확한 납기 성실한 아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수출시장에서 보루네오 가구의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보루네오가구는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더 넓은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세계속에 "BIF"의 명성을 심어갈 것이다.

## 新羅消防産業(株)

신라소방산업(주)는 1979년에 설립하여 소방장비 및 안전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신제품 개발 및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1990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출발하게 되었다.

주요생산품목은 각종 노즐을 비롯하여 이동식 및 고정식 방수포, 고발포기, 소화전용 멜브류, 연결금속구류, 포원액혼합장치 그리고 특수소방장비 등이 있으며 화재예방장비인 열감지기 시험기와 연기감지기 시험기 등도 생산하고 있다. 또, LPG등 폭발성 가스 측정기와 화재시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위한 도어오프너, 유압절단기 등을 수입 시판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소방용 제품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방사형관창과 폼관창, 폼챔버, S형 모니타 등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의 소방용 기구, 장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노사가 화합하여 인화 단결이 잘된 회사로서 소방업계의 새로운 별로 부상





할 것을 확신합니다.

회사의 방침은 좋은 생각은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은 좋은 회사로서 질좋은 제품생산과 아프터 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생산과 사후관리를 컴퓨터시스템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 한국방재연구소

한국방재연구소는 소방설비의 설계, 감리 기타 방재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소방설비업체인 한국소방건설(주)로 출발하였으나 1985년부터 설계 및 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소방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였으며 2명의 소방기술사를 포함하여 20여명의 전문엔지니어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소방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이다.

이제까지 과학기술처에 개인용역업으로 등록되었으나 금년부터 전문용역업체로 등록하여 대형화되고 있는 빌딩 및 산업플랜트에 대처하고 우루과이라

운드에 따른 외국엔지니어링 회사의 국내 진출에 경쟁할 수 있는 전문 방재 엔지니어링 회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최대 화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태안화력 12호기, 분당 열병합 발전소 및 국내 최초의 차세대 인텔리전트 빌딩이 될 지하 7층 지상 45층인 포항제철 경영정보센터(서울 역삼동 소재)빌딩 등을 설계중에 있다.

앞으로는 초고층 빌딩 및 인텔리전트 빌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신축건물설계시에 방재 설계와 병행하여 건물의 전반적인 방재계획서를 작성 제공할 예정이다.

### 더닝 코퍼레이션



### 다우코닝사의 방화 씰링재

첨단의 방화 씰링재를 도입하여 국내에 확산시키고 있는 더닝코퍼는 FILK 인증을 필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기적의 물질이라는 실리콘을 용용하여 연기, 독가스, 불을 차단시키는 데 완벽한 효능이 인증된 다우코닝사의 방화 씰링재는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처음으로 사용되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벽이나 바닥, 천정에 배선이나 배관이 관통되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는 없으므로 이 관통부위를 완벽하게 밀폐시키지 않고서는 화재발생시 재난을 피할